

## 세종대왕 초장지(舊 英陵)에 대한 재론(再論)

안 경 호\*

- |                          |                 |
|--------------------------|-----------------|
| I. 서론 : 장소에 대한 의문        | IV. 결론 : 남겨진 과제 |
| II. 문헌을 통한 ‘구 영릉’의 위치 고증 | <참고문헌>          |
| III. ‘구 영릉’인가 ‘구 희릉’인가.  | <국문요약>          |

### I. 서론 : 장소에 대한 의문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시작된 왕권과 신권의 대립은 표면적으로 궁궐경영과 산릉경영<sup>1)</sup>이라는 왕권강화 수단과 제도정비 및 고례의 고증을 통해 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궁궐과 산릉경영에 있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나라의 중심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일정한 원리와 규범이 제도으로써 정착되어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반영되었다는 점이다.<sup>2)</sup> 따라서 산릉경영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상설제도에 있어서는도 조선 왕릉의 규범이 1대 태조의 건원릉(健元陵)과 3대 태종과 원경왕후의 능인 현릉(獻陵)<sup>3)</sup>을

\*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건축)학 실측설계 전공(friiman@naver.com).

- 1) 산릉의 경영을 통한 왕권강화책은 한양 100리 이내로 한정 된 산릉의 택지 선정과정 중 무소불위의 권위로 주변의 마을과 묘를 신분의 구애 없이 이전시킴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왕실의 권위가 높았을 때 더욱 표면화 되었다.
- 2) 안경호, 「朝鮮後期 廢殿建築에 대한 研究」,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 1~4쪽.
- 3) 『世宗實錄』, 世宗 2年 9月 辛巳(16日)條 ‘山陵制度(현릉-원경왕후)’; 『世宗實錄』, 世宗 4年 9月 庚申(6日)條 ‘山陵制度(현릉-태종)’ 시대별 능제의 특성과 변천과정은 김상협이 논문을 참고할 수

시작으로, 4대 세종과 소헌왕후의 영릉(英陵)<sup>4)</sup>을 거쳐 5대 문종의 현릉(顯陵)<sup>5)</sup>에서 정립된다. 하지만 현릉과 현릉은 상설(像設) 이후 변동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반면 영릉은 예종 원년에 여주에 위치한 영릉(英陵)으로 천봉(遷奉)하며 세조의 유명(遺命)<sup>6)</sup>에 따라 건국 초부터 상설하였던 석실과 병풍석을 설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조선전기 능제의 변천 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세종의 ‘구 영릉(舊 英陵)’은 우리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세종 27년 왕비인 소헌왕후가 승하하자 시호를 ‘소헌(昭憲)’<sup>7)</sup>이라 전호를 ‘휘덕(輝德)’<sup>8)</sup>이라 능호를 ‘영릉(英陵)’이라 정하고 이미 수릉(壽陵)으로 선정한 현릉의 우측 언덕(右岡)에 궁은 같이 하고 실은 달리하는 ‘동궁이실’(同宮異室)의 석실을 조성하여 동실(東室)은 소헌왕후가 사용하고 서실(西室)은 세종의 수실(壽室)로 남겨두었으며 그 후 세종이 승하하자 서실에 합장하였다. 세종 승하 후 거듭되는 왕실의 환난<sup>9)</sup>은 결국 영릉 풍수의 불길설(不吉說)로 번지고 예종 원년에 이르러 지금의 여주로 천봉하게 된다. 영릉의 천봉으로 주인 없는 무덤으로 남게 된 ‘구 영릉’의 석물(石儀)들은 그 자리에 매안(埋安)하게 된 후 우리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다가 1970년대 세종대왕 추승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된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세종대왕 유물수집이라는 명분하에 ‘구 영릉’의 발굴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 발견된 석물들은 現 세종대왕기념관에 이전하고 발굴지는 현재 ‘세종대왕 초장지(이하 俗稱 舊英陵<sup>10)</sup>)’라는 이름으로 보존되어 왔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1973년과 74년 2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

있다. 김상협, 「조선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7).

- 4) 『世宗實錄』, 世宗 28年 7月 乙酉(19日)條, ‘凌室制度(영릉-소헌왕후).’
- 5) 『世宗實錄』, 「五禮」凶禮 儀式, 治葬條, 『國朝五禮儀』 7卷, 凶禮 治葬條, 5대 문종의 현릉에 附左되어 있는 현덕왕후의 능은 중종 8년(1513)에 改葬된 것으로 조선 전기 상설제도와는 거리가 있다.
- 6) 『睿宗實錄』, 睿宗 卽位年 9月 癸酉(17日), 乙亥(19日)條.
- 7) 『世宗實錄』, 世宗 28年 4月 丁巳(20日)條.
- 8) 『世宗實錄』, 世宗 28年 3月 丁酉(30日)條.
- 9) 세종의 장자인 문종의 단명(短命)과 세조의 왕권찬탈로 사사(賜死)당한 단종, 그리고 세조의 장자인 의경세자(덕종 추존)의 급사(急死)는 영릉의 풍수 불길설로 번지게 된다.
- 10) 본 논고는 세종대왕 초장지 위치에 대한 고증을 주제로 하고 있기에 현재까지 알려져 왔던 세종대왕 초장지를 논할 때는 ‘속칭 구 영릉’이라 칭하고 논고의 전개에 따라 새로이 밝혀지는 세종대왕 초장지에 대해서는 ‘구 영릉’이라 칭하기로 한다.

되어 영릉 신도비와 문·무석인 각 2쌍·석호 2점·석양 1점·석마 2점·난간주석 6점·우석 4점·면석 3점·혼유석 1점·고석 2점·난간대(竹石) 6점과 숯가루(炭末)와 삼물(三物)<sup>11)</sup>로 구성된 회격(灰隔)을 발굴하였다. 당시 발굴 책임자였던 김구진은 2차례에 걸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발굴지를 ‘구 영릉’이라 결론내리면서 발굴지<sup>12)</sup>에서 발견된 회격은 영릉의 천봉 후 남은 명기(明器)와 복완(服琬) 등의 부장품을 묻기 위해 별도로 조성한 일종의 편방류(便房類)로 해석하고 있다.<sup>13)</sup> 하지만 장영훈은 세종이 수릉을 택지하는 과정에서 수릉의 위치에 대한 실록의 기사<sup>14)</sup>를 근거로 ‘구 영릉’을 현 인릉(仁陵) 지역이라 주장하며 ‘속칭 구 영릉’은 영릉 천봉 당시 지석(誌石)과 애책(哀冊), 도서(圖書), 와명기(瓦明器), 잡상(雜像) 등을 묻은 병처(屏處)<sup>15)</sup>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sup>16)</sup> 또한 최근에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풍수학적인 관점에서 구 영릉의 위치에 대해 연구<sup>17)</sup>하는 등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속칭 구 영릉’의 위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출발한 본 논고는 1970년대 발굴조사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여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적사료의 영인 작업(digital)의 도움을 통해 ‘구 영릉’의 위치와 발굴지의 성격을 밝혀 주인 잃은 석물<sup>18)</sup>의 진정성을 확보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11) 삼물(三物)이란 석회·황토·세사 각 3 : 1 : 1의 비율과 느릅나무 껍질을 달인 물로 섞은 것을 말한다. 『國朝五禮儀』 7卷, 「凶禮」, 治葬條. ‘石灰三分黃土細沙各 一分和以榆皮煎水’
  - 12) 발굴지의 위치는 현릉의 혈(穴)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이며 현재는 국가정보원 내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 13) 김구진, 「구영릉 신도비와 석물에 대하여」, 『역사교육』, 18집(1975), 33~85쪽; 김구진, 「조선초기 왕릉제도: 세종대왕 구영릉 유적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25호(1979), 41~84쪽.
  - 14) 『世宗實錄』, 世宗 27年 4月 丁未(4日)條.
  - 15) 『睿宗實錄』, 睿宗 1年 1月 壬午(27日)條.
  - 16) 장영훈,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대원사, 2000); 장영훈, 『서울풍수』(도서출판 담디, 2004).
  - 17) 류재복, 「구영릉지의 위치와 풍수입지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2005).
  - 18) 현재 세종대왕기념관에는 발굴지에서 발굴한 여러 석물을 전시 보존하고 있으며 성격을 규명할 수 없는 일부 석물을 제외 한 13기가 현재 ‘舊英陵石物’이라는 이름으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42호로 지정되어 있다.

## II. 문헌을 통한 ‘구 영릉’의 위치 고증

### 1. 세종의 수릉택지와 위치

조선시대 능지(陵址)의 선정방법은 능지를 선택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첫째 임금이 살아생전 자신의 능 자리를 정하거나 둘째 임금의 승하 후 후왕이 선왕의 능 자리를 정하는 방법이 있다. 조선 전기 태조·태종·세종은 전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능지를 결정하는데 이를 수릉이라고 한다. 세종의 수릉 택지는 세종 2년 당시 상왕으로 있던 태종의 수릉지(현 헌릉)를 천광(穿壤)하는 날로부터 시작된다.

광주 대모산(大母山)에 천광하는데, 깊이가 13척 3촌이니, 주척으로 계량한 것이다.···이 날에 이르러 상왕이 선지(宣旨)로 이르기를, “조금 동쪽으로 하고 그의 오른편을 비어 두어서 나의 백세(百歲) 뒤에 쓰게 하라”하였다.<sup>19)</sup>

따라서 태종이 수릉을 광주 대모산에 결정하고 수릉을 조성하기 위해 천광을 하며 내린 유지(遺旨)는 세종의 수릉지 선정에 있어서 그 장소가 대모산의 도국 내에 한정되게 되며 18년 후 자신의 수릉을 헌릉의 곁에 정하게 한다.<sup>20)</sup> 하지만 수릉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듯 그 후에도 수릉 자리에 대한 풍수학적 길흉의 논의<sup>21)</sup>만 있고 수릉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수릉 혈 자리 선정에 있어 대모산 감방론(坎方論)을 제시한 서운부정 최양선의 이견(異見)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옥고를 치루기도 한다.<sup>22)</sup> 이처럼 오랜 기간을 거친 수릉 선정과정은 수릉지 보토 지역의 개기(開基)를 시작으로 일단락된다.<sup>23)</sup> 즉, 태종의 유지대로 헌릉도국 안(獻陵西穴)에 수릉을 선정한 것이다.

이처럼 실록이 기록된 헌릉의 서쪽 혈이라는 지리적 위치를 방대한 헌릉 도국

19) 『世宗實錄』, 世宗 2年 9月 壬申(7日)條

20) 『世宗實錄』, 世宗 20年 10月 壬子(1日)條

21) 『世宗實錄』, 世宗 25年 1月 壬午(26日)條

22) 『世宗實錄』, 世宗 25年 1月 丙戌(30日), 2月 戊子(2일), 己丑(3일), 癸巳(7일), 己酉(23일)條

23) 『世宗實錄』, 世宗 26年 7月 甲子(17日)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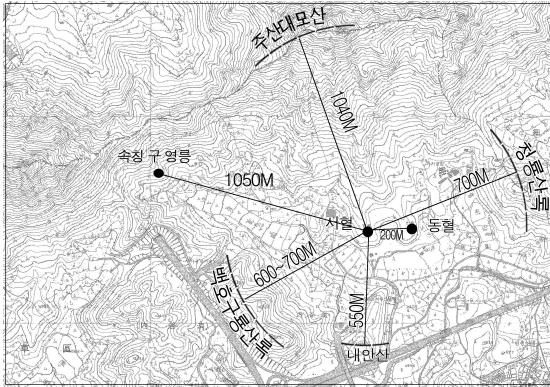
내에서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이상의 기록만 가지고 ‘속칭 구 영릉’을 세종의 수릉지로 판단하기 또한 어렵다. 그러나 세종이 수릉을 선정함에 있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풍수학적 불길설을 주변의 형세와 풍수서의 조목을 나열하며 반박하는 하연 등의 상서(上書)에는 수릉 자리의 지리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현릉의 서혈(西穴)에 나아가 주봉(主峯)과 사방에 둘러 있는 여러 봉(峯)의 응대(應對)와 여러 물의 오고 가는 방위(方位)를 규형(窺衡)으로 측량하고 주척(周尺)으로 재어서 측량하였는데…현릉(獻陵)의 주혈(主穴)에서 백호(白虎) 구룡 산록(九龍山麓)까지는 3천 2백 64척이윽고, 청룡(靑龍) 산록까지는 1천 8백 73척이온데, 서혈 명당(西穴明堂)에서 외백호(外白虎) 구룡 산록까지는 2천 3백 28척, 청룡 산록까지는 2천 8백 17척, 내안산(內案山)까지는 2천 7백 51척이오며, 동서 양혈(東西兩穴)의 거리는 9백 44척입니다. 따라서 이로써 보건대, 동서 두 혈(穴)이 모두 도국(圖局)의 한 가운데에 있고 곁에 있지 않습니다.…대모산(大母山)의 바른 용이 몸을 헤치고 곧게 내려와서 두 혈을 나누어 만들었으니…이제 이 혈을 보건대, 주산(主山)이 임(壬)에 있고 머리를 숙인 것도 임(壬)이 되어, 순일(純一)하고 잡되지 아니하며, 산 뼈[山骨]가 역력하고, 내려온 용이 단적(端的)하여 연하고 붙고 비껴서 나온 형상이 없으며, 좌우 안대(案對)가 알맞고 평평하고 바르며, 한 기운이 일어나고 엮드리면서 굴실굴실 내려와서 5천 3백여 척에 이르러 그쳤는데…이제 규형(窺衡)으로 명당에서 측정해 바라보면, 대모산 주봉 및 좌혈(坐穴)이 모두 임(壬)에 속하였으니 어찌 자(子)·계(癸)·축(丑) 세 자리를 건너서 간(艮)과 가깝겠습니까. 또 곤방(坤方)에는 20보 안에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먼 곳이라도 절대로 물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대모산 정맥(正脈)이 임(壬)으로 떨어져 두 가지로 나누어서, 건해(乾亥)로 머물러서 현릉(獻陵)의 주혈(主穴)이 되고, 한 가지는 임(壬)으로 머물러서 서혈(西穴)이 되었으며…풍수학(風水學)에 내려 의논하게 하고, 드디어 서혈(西穴)로 정하였다.<sup>24)</sup>

상기 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세종의 수릉과 주변과의 거리 관계를 분석하면 다음 <그림 1>과 <표 1>로 나타낼 수 있다.

24) 『世宗實錄』, 27年 4月 丁未(4日)條

&lt;그림 1&gt; 동·서혈과 四神砂의 관계



실록의 기록과 현 인릉과의 관계를 비교하면 청룡과 백호와의 거리를 제외하곤 거의 일치하고 있지만 ‘속칭 구영릉’의 경우에는 같은 도국 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장영훈에 의해 먼저 논의된 바<sup>25)</sup> 있지만 각 사신사(四神砂)의 거리 측

정에 있어 불분명한 기준은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기에 관점에 따라 편차가 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기(上記) 실록의 단편적인 기사만 가지고 현 인릉지역을 세종의 수릉지역으로 확정짓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다른 문헌의 고증을 통한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lt;표 1&gt; 실록에 기록된 수릉지와 주변과의 관계분석

구분	세종실록(서혈)	現 인릉	발굴지(속칭 구영릉)
도국에서의 위치	도국의 중앙	도국의 중앙	같은 도국에 위치. 四神砂를 달리함.
동혈과의 거리	944자(약 189m) <sup>26)</sup>	약 200m <sup>27)</sup>	약 1,250m
동혈과 백호의 거리 (구룡산록)	3,264자(약 652m)	-	-
서혈과 외백호의 거리 (구룡산록)	2,328자(약 465m)	약 600~700m	약 200m
동혈과 청룡의 거리	1,873자(374m)	-	-
서혈과 청룡산록거리	2,817자(약 563m)	약 700m	약 200m
서혈 -내안산간 거리	2,751자(약 550m)	약 550m	약 1,050m(仁陵岡)
주산의 거리(대모산)	5,300여자 (약 1,060m)	약 1,040m	약 250m 주산을 대모산이 아닌 乾方의 峰으로 봄.
주산의 방위	혈(서혈)에서 壬方	혈에서 壬方	발굴지에서 乾方

25) 장영훈은 구영릉의 위치를 현 인릉 지역으로 주장하였으며 나아가서 73년 발굴지에 대해서는 영릉을 천봉 할 때 舊陵의 석물 등을 매안한 ‘屏處’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장영훈, 앞의 책(2000), 480~489쪽.

## 2. 신도비 발견 위치와 ‘구 영릉’의 관계

영릉의 신도비는 세종대왕 승하 후 2년이 지난 문종 2년에 세워지는데 당시 문종의 노심초사하는 모습으로 보아 신도비의 제작과정과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도비의 큰 규모는 먼저 비를 제작하고 비각은 나중에 건립하는 방식을 취한다.<sup>28)</sup> 이 때 세운 신도비는 예종 1년 영릉을 여주로 천봉(遷奉)하는 과정에서 땅에 묻게 되는데 그 기록을 살펴보면,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천릉도감제조(遷陵都監提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구 영릉의 석실(石室)은 파지 말고 편리한 대로 묻도록 하되, 흙을 덮어서 산(山)의 모양과 같이 하고, 잡상(雜象)·비석(碑石)도 묻도록 하라”하였다.<sup>29)</sup>

라고 하여 신도비와 잡상(雜像은 石儀를 일컫는다) 뿐만 아니라 석실도 파내지 않고 그 자리에 묻은 것을 알 수 있다. ‘구 영릉’의 신도비는 1973년 발굴을 통해 현 인릉의 하단에서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위치에 대한 고증은 실록을 근간으로 하여 ‘숙종 17년 비에 의해 처음 노출되었고 다시 정결처(淨潔處)에 묻었으며<sup>30)</sup> 그로 인해 처음 매안한 장소에서 정결처인 즉 지금의 인릉 하단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영조 14년 다시 한 번 노출되는데<sup>31)</sup> 이를 두고 ‘신도비를 다시 세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발굴하였으나 글자의 마모가 심해 다시 그 자리에 묻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73년 발굴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인릉의 정자각터에서 서쪽으로 50m 지점, 인릉의 봉분에서 남서쪽으로 60m 지점이다. 이 신도비는 비신(碑身)만 발견하고, 그 귀부(龜趺)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신도비의 비신이 나온 지역은…석벽 가운데 폭 2m, 길이 6.5m, 두께 50~60cm 정도로 인공으로 파놓은 곳이다…<sup>32)</sup>

26) 이때 사용된 척은 주척으로 세종 당대 주척을 지금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9~21cm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주척 1자를 20cm로 가정하여 환산하였다.

27) 실제 거리는 구글어스(<http://earth.google.com/>)의 거리측량 기능을 사용함.

28) 『文宗實錄』, 2年 2月 甲申(20日), 乙酉(21日), 3月 辛酉(28日)條.

29) 『睿宗實錄』, 1年 7月 辛卯(10日)條.

30) 『肅宗實錄』, 17年 閏7月 丙辰(3日)條.

31) 『英祖實錄』, 14年 10月 丁亥(8日)條.

하지만, 상기 내용에서 신도비의 발견 장소를 인릉 정자각에서 서쪽 50m 그리고 인릉 봉분<sup>33)</sup>에서 남서쪽으로 60m 지점이라 기술하고 있고 같은 보고서에 실린 도판에는 발견지점을 인릉과 현릉의 중간지점(즉, 인릉의 동쪽)에 표시하고 있어 그 위치에 의문이 생기지만 도판의 축척이 5만분의 1 대축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판보다 문자에 더 신빙성을 두고 싶다. 숙종 17년과 영조 14년 신도비가 노출된 이유를 차제(此際)에 다시 거론하여야 하나 지금은 당시 신도비의 매안처(埋安處)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각설하고,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숙종조 처음 신도비의 노출장소를 ‘현릉 능침의 우측 옛 능 혈 자리의 앞’<sup>34)</sup>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때 신도비를 다시 정결한 장소에 묻게 된<sup>35)</sup> 후 영조 14년 종친인 연성수(蓮城守) 이근의 상소<sup>36)</sup>로 다시 회자된다. 이때 이근은 숙종조에 매안한 영릉의 신도비를 다시 찾아 세우고 아울러 목릉(선조)에도 신도비를 세울 것을 제안하며 신도비의 매안 장소를 ‘옛 능 아래에 매치(埋置)되어 있는’이라고 하여 숙종조 당시의 정결처가 구릉 즉 구 영릉의 주변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만 가지고 신도비의 정확한 매안처를 알아내기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신도비의 매안처에 대한 궁금증은 의외로 ‘各陵修改謄錄’<sup>37)</sup>이라는 문헌에서 쉽게 풀리게 되었다.

현종 15년 2월 14일 우의정 김수흥은 영릉 천릉 후 구릉 근처에 묻었던 신도비의 모서리가 지금 노출되었으니 예관을 보내어 간심하고 오겠다고 현종에게 고하니 현종은 예조당상에게 간심하고 오라 지시한다.<sup>38)</sup> 다음날 신도비를 간심하고 온 예조참판 김익경은 신도비의 규모와 매안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 김구진, 앞의 논문(1975), 46쪽.

33) 인릉의 봉분에서 남서쪽으로 60m 지점은 인릉 사초지 영역에 해당하여 신도비의 발견 개연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되므로, 이때의 봉분을 지금의 사초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서 신도비 발견지점을 인릉 사초지 하단에서 남서쪽으로 60m 지점으로 해석하였다.

34) 『承政院日記』肅宗 17年 閏7月 丙辰(3日)條 ‘獻陵陵寢右邊舊陵穴前’

35) 『承政院日記』肅宗 17年 閏7月 癸酉(20日)條

36) 『承政院日記』英祖 14年 9月 己卯(30日)條 ‘…埋置於舊陵之下…’

37) 조선시대 인조·현종·숙종·영조·정조대에 각 왕릉을 修改하고 그 사실을 기록한 책으로 전체 21책으로 이루어 졌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보관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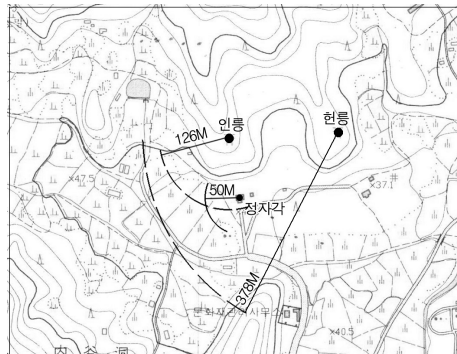
38) 『各陵修改謄錄』14冊, 甲寅(현종15)年 2月 14日條 ‘今二月十四日受鍼入侍時右議政金壽興所啓曾聞英陵神道碑遷後埋安於舊陵近處矣今則碑角露出云令禮官進往看審何如上日使禮曹堂上看審以來可也.’



參判金益旻 獻陵內舊 英陵碑石看審書 啓臣進詣獻陵舊 英陵碑石詳細看審則 **獻陵之西南三百步許舊 英陵之南一百步**果爲在置是白有去乙以 獻陵所上周尺尺量則**長十六尺三寸廣五尺厚一尺六寸五分**而前面露出盡爲剝落不但全無字畫之痕有若初不琢磨者然左邊兩處細隙徹於後面左右隅亦有傷缺之處即今所見便是沒字碑而龍頭下 世宗英陵之碑篆文六字則以其字畫大而深刻故剝落不至大段猶爲分明可記而後面則樹木陰翳時未解凍且以若干軍人不得運動故勢難看審是白乎 旻**龜石則片片拆裂散在於碑石近處**是白齊 啓<sup>39)</sup>

즉, 신도비가 매안된 위치가 현릉에서 서남쪽으로 약 300보(1步는 周尺 6尺) 정도에 구 영릉(穴)에서 남쪽으로 100보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 거리는 각 룡의 혈에서의 거리라고 생각된다. 보를 지금의 m로 환산하면 현릉 서남쪽 378m, 구 영릉 남쪽 126m 지점에서 신도비가 발견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릉에서

<그림 2> 신도비 발견위치



의 거리는 ‘…三百步許’라는 대략 그 정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구 영릉에서의 거리는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현릉까지의 거리 측정은 장애물로 인한 대략의 거리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영릉 천릉 당시 신도비를 묻은 장소가 현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으며 그 장소가 구릉(舊陵)의 근처였다는 점, 둘째, 구 영릉 남쪽 126m 지점은 1973년 발굴 당시 발견된 인릉 정자각 서쪽 50m 지점과 거의 같은 장소란 사실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당시 발견된 신도비의 근처에는 귀석(龜石)이 터지고 찢어져서 조각조각 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1973년 미확인된 귀부에 대한 발굴 가능성이 사라져 아쉬움이 남는다.

이상의 논고만으로 **현 인릉 지역이 ‘구 영릉’이었다는 것**을 밝히기에 충분하나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문헌만을 통한 고증은 잘못하면 추론에만 그칠 우

39) 『各陵修改曆錄』14冊, 甲寅(현종15)年 2月 16日條

(愚)를 범할까 우려된다. 이에 한 가지 더 보충하고자 현 인릉의 천릉 과정에서 구 영릉과 관련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 3. 인릉의 천릉과 '구 영릉'과의 관계

1834년 순조 34년 임금이 승하하자 산릉도감에서는 능소(陵所)를 구 장릉(長陵) 외청룡에 정하게 된다.<sup>40)</sup> 승하 후 약 70일이 지나 산릉지역이 시작 되어 능상에 용가와 수도각을 짓고 정자각 개기(開基)를 하였으며 하물며 상설에 필요한 석재를 강화도에서 운반해 오기까지 하였는데 개금정(開金井)을 하여 광을 6자 3치까지 파내려가니 ‘흙빛이 좋지 않고 뇌석(腦石)이 깨져 상할 염려가 있으니 산릉역사를 중지하고 길지(吉地)를 다시 선정하라’<sup>41)</sup>고 대왕대비의 수렴 전교가 내려진다. 이 때 3개소의 길지가 간택되어지며 그 가운데 현 장릉의 좌측 언덕(長陵左岡)이 선정되어 산릉역사를 다시하게 된다.<sup>42)</sup> 국상기간 중에 능소의 위치변동은 정해진 기일(발인)안에 산릉역사를 마무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며 처음 능소를 선정할 때 약 한 달이 소요된 것에 비해 두 번째 능소선정은 보름 만에 이루어지고 당시 졸속으로 선정되었던 능소는 22년 뒤 풍수와 관련된 길흉논박을 거쳐 현재 현릉의 우측 언덕에 천릉하게 된다.<sup>43)</sup> 인릉의 천릉장소는 인조 승하 후 처음

40) 『仁陵山陵都監儀軌』1冊, 「時日」甲午(1834)年 12月 4日・16日・27日, 「傳教」12月 14日・21日條. 능소의 결정은 3간택과 3간심으로 행해졌다. 초간택에 선정된 10개소에 대한 초간심 후 4개소를 재간택하여 재간심하고 또한 1개소를 간택하여 삼간심을 하였으며 3간택으로 선정된 지역이 구 장릉의 외청룡 지역이며 이 지역은 인렬왕후(인조비)의 초장지로 사용된 현 문산읍 운천리 능말 마을 일원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항은 초간택에 선정된 10개소 능소지역 가운데 英陵 舊基와 英陵 舊基 근처 甕嚴洞이 있으며 이 두 곳은 재간택에 까지 선정된다. 그 때 선정된 지역에 대한 풍수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며 각각의 論을 說하는데 그 중 구 영릉과 관련된 山論이 ‘獻陵右岡舊英陵基壬坐山論’과 ‘獻陵右岡甕嚴洞子坐山論’이다. 이 두 가지 方位論은 철종 7(1856)년 인릉을 천릉하면서 다시 거론되는 주장이다.

41) 『憲宗實錄』, 憲宗 1年 2月 戊午(29日)條.

42) 『仁陵山陵都監儀軌』1冊, 「時日」乙未(1835)年 2月 25日・27日・29日・30日條. 초간택에 선정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厚陵右岡 長湍邑基後, 長陵左岡, 章陵局內’ 지역으로 모두 처음의 陵所에서 가까운 지역이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설에 필요한 석재 등을 이미 능소에 운반해 놓은 상태에서 산릉역사의 시일을 단축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43) 인릉 천릉의 시작은 을묘(철종 6)년 정월 천릉의 전교가 내려진 후 부터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시역은 병진(철종 7) 2월 22일 산릉도감의 인원이 차출되는 시기부터 安陵奠이 이루어지는

거론되었던 ‘구 영릉기(舊 英陵基)’로 선정되며 ‘헌릉우강좌좌산론(獻陵右岡子坐山論)’이라는 논리로 귀결되었다.<sup>44)</sup>

철종 6년 정월 인릉의 천봉을 결정하게 되고 다음해 2월 20일 철종은 친히 헌릉에 제(祭)를 지낸 다음 천릉할 장소를 간심하게 된다. 그 후 천릉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 ‘구 영릉’에 관계된 사항을 시일별로 간추리면 다음 <표 2><sup>45)</sup>와 같다. 그 중 3월 19일·24일·25일·26일의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3월 19일에 ‘흙을 파고 나무뿌리를 제거하자 봉표 앞 약 20자 떨어진 지점에서 옛 기지(基址)의 곡장지대석형상이 노출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24일에는 ‘정자각 개기를 하였고, 옛 곡장지대석과 가석 그리고 병풍석 면·우석이 차례로 노출되었다’고 한다. 그 다음날에는 ‘정자각 개기 후 연이어 사방의 나무뿌리를 파내니 옛 능 광 자리의 천회(天灰)가 노출되었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26일에는 ‘봉표근처의 석의(石儀)를 이용하

<표 2>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1책, ‘시일’條

時 日	內 容
乙卯	敬定 仁陵遷奉之禮
1月 18日	
丙辰	獻陵 親祭後 親看審
2月 20日	山陵定於 獻陵右岡事 傳敎
同日	遷陵都監 山陵都監堂郎差出
24日	都監會同于忠勳府
26日	辰時 山陵封標于 獻陵右岡
27日	賓廳會議擇日
3月 10日	都監堂郎以下出往 陵所
11日	曉頭先行 祠后土祭
同日	辰時 山陵始役斬草破土開 塋域去浮土
19日	連爲去浮土掘木根而自封標前距二十尺許 舊基曲墻地臺石形址露出
24日	丁字閣開基舊曲墻地臺石鰲石屏風石 面隅石次第露出
25日	丁字閣開基後連方掘木根 舊塋基址 天灰露出
26日	因 傳敎 封標近處與 禧陵舊基 前排石儀 移用
28日	前排石儀之可以裁作入用者先爲治鍊
- 이하생략 -	

10월 15일까지 무려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

- 44) 『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1冊, 「傳敎」丙辰(哲宗 7)年 2月 26日條. 천릉의 장소는 능소의 처음 간택에서 거론되었던 헌릉우강 즉, 舊 英陵基가 선정되지만, 좌향론에 있어서 처음에 제시되었던 壬坐山論이 천릉에서는 子坐山論으로 바뀌게 된다. 전술(세종의 수릉택지 과정 참조)한 바와 같이 세종조 ‘구 영릉’의 선정과정 가운데에서 ‘獻陵右岡壬坐山論’에 대해 ‘손이 끊어지고 만아들을 잃는다.’는 ‘絶嗣損長子說’의 이견(異見)을 최양선이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坎方論’ 즉, ‘子坐山論’을 의식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 때의 발언으로 최양선은 옥고를 치르고 파직당한다.
- 45) 『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1冊, 「時日」條

라'는 전교가 내려지는데 바로 광을 파면서 차례로 노출되었던 것이다. 이상은 인릉 천릉당시의 일정을 간략히 기술한 것으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그 시일에 해당하는 일자의 「傳敎」, 「移文」, 「甘結」 등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丙辰三月十九日 狀啓(聯名上同)

去浮土伐去木連日董役爲白在如中 自封標前距二十尺許舊基曲墻地臺石形址盡爲露出爲白乎於連爲去浮土掘木根緣由馳啓爲白臥乎事

丙辰三月二十四日

浮土木根連爲掘去之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 舊曲墻地臺石前面花階石駕石屏風面隅石次第露出是白乎等以連加去浮土掘木根爲白乎於丁字閣開基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丙辰三月二十五日 狀啓(聯名上同)

舊曲墻內石物次第露出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漸次掘開 自曲墻花階前距三十一尺五寸許面隅石露出是白違自面隅石前距九尺許舊墳基址天灰露出而周回之屏風地臺石及欄干下磚石盡爲露出四方尺量則天灰東西爲二十七尺許南北爲二十五尺許是白乎所天灰高厚尺量姑未可知連爲掘開計料爲白乎於丁字閣開基後連方掘木根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sup>46)</sup>

라고 하여 「時日」에서 기술한 내용 외에 추가로 3월 24일 ‘옛 곡장지대석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화계석이 노출된 것’을 알 수 있으며, 25일 ‘옛 곡장 안의 석물이 차례로 노출’되었으며, 또한 ‘곡장화계 앞에서 31자 5치 정도 떨어져서 면우석이 노출’되었고, 다시 ‘면우석 앞 9자 정도 떨어져서 옛 광기(塋基)의 천회가 노출’되고 그 주위를 둘러서 병풍지대석과 난간하박석이 노출되었고 천회의 사방을 헤아려보니 동서가 27자 정도에 남북이 25자 정도’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구 영릉’의 능실제도가 사망의 숯가루(炭末: 각 5치)를 제외한 삼물(석회·세사·황토로 이루어진 회격)의 규모가 동서 28자에 남북이 24자 5치<sup>47)</sup>인 것을 보면 그 규모가 거의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때 ‘舊曲墻內石物次第露出’은 곡장 안의 석물인 석양과 석호의 노출이 있었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46) 『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1冊, 「傳敎」丙辰(철종 7)年 3月 19日・24日・25日條.

47) 『世宗實錄』, 世宗 28年 7月 乙酉(19日)條. ‘凌室制度.’

여기까지 세종대왕의 초장지 즉, ‘구 영릉’의 위치를 문헌을 통해 상고하였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세종 연간 수릉의 택지 과정에서 나타난 수릉의 위치가 현 인릉 부근이었을 것이라는 추정, 둘째, 1973년 신도비가 발굴된 장소와 현종년간 발견된 구 영릉 신도비의 위치에 있어 큰 변동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위치가 현 인릉 부근이라는 점, 셋째, 철종 7년 인릉을 파주에서 천릉할 때 광을 조성하면서 병풍석 면·우석<sup>48)</sup>이 발견되었고 결정적으로 천회의 규모가 ‘구 영릉’의 삼릉 규모와 거의 동일한 점 등 이상 세 가지 사실을 종합해보면 세종과 소헌왕후의 천릉전 능소인 ‘구 영릉’의 위치는 지금의 인릉이며 더 나아가서 그 혈 자리도 인릉의 혈과 동일했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구 영릉’에 대한 위치 수정은 ‘속칭 구 영릉’의 진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다음은 ‘속칭 구 영릉’에 대해 상고하도록 한다.

### III. ‘구 영릉’인가 ‘구 희릉’인가

‘구 영릉’의 위치가 1973년 발굴지(속칭 구 영릉)가 아니라 현 인릉이었다는 사실은 바로 발굴 장소에 대한 진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발굴지에서 발견된 각종 석물과 회격시설 등의 유구는 조선시대 왕릉의 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피장자(彼葬者)는 누구일까? 하는 의구심이 남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종계비 장경왕후의 희릉을 처음 조성한 ‘구 희릉’이다. 대모산을 주산으로 하는 현릉의 도국 내에는 구 영릉과 현 인릉을 제외하고 두 번의 산릉지역이 이루어졌다. 문종 2년 5월 승하한 문종의 현릉과 중종 10년 3월 승하한 중종의 제1계비인 장경왕후의 희릉이며 이 두 번의 능소 택지에 가능성을 가지고 상고하기로 한다.

#### 1. 현릉(문종)과 희릉(장경왕후)

문종 승하 후 능소를 선정함에 있어 수양대군 등이 간섭하고 이르기를 ‘영릉의

48) 조선의 왕릉에서 병풍석의 조성은 문종의 현릉 이전시대으로써 세조의 광릉부터는 遺訓에 따라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설치하는 제도로 정착된다. 단 성종과 중종의 계보를 잇는 인종·명종·선조의 능은 예외로 병풍석을 설치하였다.

도국 안에 있으나 산등성이 하나가 빙 둘러서 따로 도국이 되었고, 산 모양과 수 파가 모두 좋고, 또 조종의 능침 옆이니 그대로 쓰는 것이 편합니다.<sup>49)</sup>라고 하여 능소로 택정되고 산릉지역에 들어간다. 하지만 광중을 파는 도중 9자 깊이에서 물이 나와 능소를 다시 선정<sup>50)</sup>하게 되며 다시 선정된 영릉의 서쪽 또한 광중에 돌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장소를 선정하게 되는데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영릉의 서혈을 파니 돌이 있어서, 세조와 이용·황보인·김종서·정분·이정녕·정인지·이사철·민신·이사순·이순지 및 풍수학 낭관에게 명하여 건원릉(健元陵)에 가서 동혈을 살펴보고 정하게 하였다. 처음에 영릉 남혈에 물이 있으므로 정인지가 다시 다른 혈을 상지(相地)하려 하지 않고, 위의 천광(穿曠)에 가깝게 하려 하니 여러 대신들이 따르지 아니하고서 다시 서혈을 상지하였다…<sup>51)</sup>

라고 하여 처음 영릉의 남쪽 혈에 선정하였다가 물이 나와 다시 옮긴 자리가 영릉의 서쪽 혈이었으며 또 다시 광중에 돌이 나와서 옮긴 곳이 건원릉의 동혈로 지금의 현릉자리인 것이다. 당시 기록으로 보아 광중을 파는 도중에 능소를 옮기는 과정으로 보아 천광(穿曠) 이후 지역인 삼물조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속칭 구 영릉’에서 발견된 회격시설은 현릉과는 무관한 시설이라 생각되고, 또한 ‘속칭 구 영릉’이 영릉의 서쪽이라는 지리적 이유로 현릉과 관계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고로 현릉의 두 번째 천광지(穿曠址)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된다.

중종 10년 3월 중전(장경왕후)이 승하하자 경릉(敬陵)지역과 현릉지역 두 곳이 선정되며 ‘현릉지역이 큰 강(한강)을 건너 공역에 힘이 들지만 쌍분을 만들만큼 능역의 규모가 크다’<sup>52)</sup>는 이유로 현릉의 서쪽 언덕을 택정하게 된다. 능소의 결정이 이루어진 후 금정(金井)을 5자쯤 파 내려가니 큰 돌이 나와 남쪽으로 약간 아래로(수도(隧)道)를 삼으려고 파놓은 자리) 이동하여 천광(穿曠)을 하였다.<sup>53)</sup> 국장

49) 『端宗實錄』, 端宗 卽位年 5月 乙卯(23日)條.

50) 『端宗實錄』, 端宗 卽位年 7月 戊申(17日)條.

51) 『端宗實錄』, 端宗 卽位年 7月 乙卯(24日)條.

52) 『中宗實錄』, 中宗 10年 3月 己巳(12日)條.

53) 『中宗實錄』, 中宗 10年 3月 丙戌(29日)條.

을 치른 지 22년이 지난 후 희릉의 국장 당시 충호사였던 정광필을 축출하기 위한 김안로의 모략으로 희릉의 ‘천릉논(遷陵論)’이 제기되었다.<sup>54)</sup>

천릉의 주된 사유로 거론된 것이 ‘희릉 조성 시 광중에 돌이 나왔는데 풍수에서 돌 있는 곳에 무덤을 쓰는 것은 금기이며 또한 돌은 물을 수반하므로 희릉이 침수되었을 것’<sup>55)</sup>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구 희릉과 관련된 내용과 1973년 발굴지인 ‘속칭 구 영릉’에 관련된 내용을 서로

<표 3> ‘속칭 구 영릉’과 ‘구 희릉’ 비교

墳基	속칭 구 영릉	구 희릉(실록)
위치	현릉의 서쪽	현릉서강
좌향	건좌손향	건좌손향
기반	암반굴착	돌
현궁	1실	1실
규모	2.9m×1.61m=4.67㎡	-
깊이	1.42cm(내부)+0.86cm(天灰)+0.6cm(난간지대석)=2.88cm(약9.3尺)	10尺
재료	강회층	삼물(三物)
석물	난간석과 난간지대석의 유물 발굴(병풍석 無)	-
내부 현황	측벽의 침수흔적	침수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따라서 구 희릉과 관련된 실록의 내용과 ‘속칭 구 영릉’의 발굴 현황이 모든 면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릉의 천광관련기록과 ‘속칭 구 영릉’과의 관계가 불일치하고 있어 희릉 초장지 즉, ‘구 희릉’에 더욱 무게가 간다.

## 2. 인릉의 천봉(遷奉)과 ‘구 희릉’

대왕대비(순조비 순원왕후)의 전교로 결정된 인릉의 천봉은 철종 7년(1856) 2월 26일 현릉우강에 산릉 봉표가 이루어진다. 산릉봉표는 다섯 곳(동·서·남·북 사방과 중앙 혈)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 봉표로써 중앙 혈 자리와 산릉의 영역(塋域)을 표시하는 것이다. 인릉 영역의 규모는 ‘혈에서 동쪽으로 현릉 우측(서쪽) 냇가 가장자리까지 60보, 서쪽으로는 서쪽 마을입구까지 2,400보, 남쪽으로는 길 아래 마을까지 3,000보, 북쪽으로는 일원리(현 일원동)까지 3,000보’<sup>56)</sup>라고 하여 전체 면적 약 60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 2.5배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인 것이다.

54) 『中宗實錄』, 中宗 32年 4月 辛未(23日)條.

55) 『中宗實錄』, 中宗 32年 4月 癸酉(25日)條.

56) 『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1冊, 「禮闕」, ‘丙辰 5月 21日’條.

인릉의 영역으로 선정된 곳에는 이미 선대의 능소로 사용되었던 구 영릉과 구 희릉이 존재했었고 그 가운데 ‘구 영릉’ 혈에 인릉 혈을 사용한 것은 상술한 바와 같다. 인릉의 산릉지역을 하는 도중 ‘구 영릉’에 사용되었던 병풍석과 상설석의(像設石儀) 등이 노출되었으며, 또한 ‘구 희릉’ 주변의 굴취지역을 통해 희릉에 사용되었던 석의를 노출하였다. 이에 산릉도감에서 ‘영릉과 희릉(舊陵)’에 사용했던 석의를 다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장계를 올리며 3월 26일 철종의 윤허로 구 석의를 재사용하게 된다.<sup>57)</sup> 당시 영릉과 희릉에서 수습된 석의의 종류와 시일, 그리고 인릉 상설에 사용된 석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4><sup>58)</sup>와 같다.

<표 4> ‘舊陵’ 노출 석의(石儀)와 인릉 상설에 사용된 석의

석의	인릉 상설에 사용된 석의			‘구 영릉’ 노출 (병진:철종7년)	‘구 희릉’ 노출 (병진:철종7년)	‘속칭 구 영릉’ 발굴 (1973~74)
	‘구 영릉’	‘구 희릉’	새로 조성			
혼유석	1건 磨磨以用	-	-	1좌(4월3일)	1좌(3월12일)	혼유석 1좌 고석 1좌
장명등	체석(體石) 移用	개석(蓋石) 移用	-	장명등 (3월21일)	체석(3월12일) 개석(3월12일)	체석 1좌
호석	2쌍	-	-	-	-	2쌍
양석	1개 雕琢以用	1쌍 雕琢以用	1개	-	1쌍(3월13일)	1쌍
망주석	-	대구(臺臼) 2좌	주대(柱臺) 2좌	-	망대구 1쌍 (3월13일)	원수(圓首) 1좌
문석인	1쌍 雕琢以用	-	-	1쌍(4월13일)	1쌍(3월12일)	1쌍
무석인	1쌍 雕琢以用	-	-	1쌍(4월19일)	1쌍(3월12일)	1쌍
마석	-	1개 雕琢以用 (1쌍 運入 後)	3개	-	1쌍(3월12일)	1쌍

인릉의 상설에 사용된 석의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봉분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면박석(面磚石) 12개와 우박석(隅磚石: 난간지대석) 12개, 석주(石柱) 12개, 난간대석(竹石) 12개 그리고 난간지대석의 하부에 설치하는 엄박석(掩磚石) 48개는 모두 새로 준비한 것을 사용하였다.<sup>59)</sup> 하지만 상설에 필요한 석의의 경우 혼유석은 ‘구

57) 『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1冊, 「時日」, ‘丙辰 3月 26日’條.

58) 『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2冊, 「大浮石所儀軌」, ‘圖說’ ‘目錄’條.

59) 面磚石·隅磚石·掩磚石의 ‘磚’은 ‘礪’의 誤寫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면전석이 아니라 면박석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또한 ‘竹石’은 이두식 표현으로 ‘난간대, 막대, 담뱃대’라고 말할 때의 ‘대’라는 우리말을 한자인 ‘대 竹’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대석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영릉'과 '구 회릉'에서 노출된 혼유석 가운데 구 영릉의 혼유석을 솥 돌로 갈아서 사용하였고, 장명등에 있어서 체석은 '구 영릉'의 것을, 개석은 '구 회릉'의 것을 사용하였다. 또 호석 2쌍은 모두 '구 영릉'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양석은 '구 영릉'의 것 1개와 '구 회릉'의 것 1쌍은 재사용하고 새로 1개를 준비하였다. 또한 망주석의 경우 기둥을 받치는 대구 2좌는 '구 회릉'의 것을 사용하고 주대는 새로이 준비하였다. 석인의 경우 문·무석인 각 1쌍은 '구 영릉'에서 노출된 것을 조각(雕琢)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석은 '구 회릉'의 것 1쌍을 신릉(新陵) 역소(役所)로 운반해 오지만 그 중 1개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3개는 새로이 준비한다.

인릉의 천봉 당시 '구 룡'에서 발견된 석의를 사용하는 기준은 먼저 '구 영릉'의 발견석물을 쓰고, 모자라는 것은 '구 회릉'의 것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래도 모자라면 새로 준비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73년 '속칭 구 영릉'에서 발견되는 혼유석 1좌, 장명등의 체석 1좌, 호석 2쌍, 양석 1쌍, 망주석의 원수 1좌, 문석인 1쌍, 무석인 1쌍 그리고 마석 1쌍은 인릉의 조성 시 '구 회릉'에 남겨진 석의를 그 자리에 다시 되묻은 것으로 볼 수 있다.<sup>60)</sup> 또한 인릉의 정자각 초석도 '구 회릉'의 정자각 초석을 이용하였던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sup>61)</sup>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속칭 구 영릉'이 '구 회릉'이었을 개연성(蓋然性)은 더욱 커진다.

### 3. 회릉지문

'지석(誌石)'이란 대행(大行)의 선원계보(왕후는 세가계보), 즉위(책봉)과정, 행적 등을 소상히 기록한 지문(誌文)을 돌에 새기어 능침의 곁에 매안한 것을 이른다. 1973년 발굴이 이루어진 '속칭 구 영릉'에서도 이 지석이 발견되었다.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지석은 봉분터의 석실에서 동남쪽으로 16m 지점에서 출토되었다.…수많은 지석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발견된 지석은 석실의 동남쪽 지점이었고 그 거리도 훨씬 먼 곳이었다. 이는 천장할 때 지석을 옮겨 묻은 것으로 추측된다.

60) 『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2冊, 「大浮石所儀軌」, 稟目 '丙辰 9月 25日'條.

61) 『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2冊, 「造成所儀軌」, 稟目 '丙辰 4月 11日'條.

발견된 지식은 완전한 것은 아니고, 전체 중에 그 하단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규모는 밑변이 101cm, 높이가 41cm, 두께가 15cm이다.…그 결이 좌우로 심하게 나 있어, 조금 남아 있는 글자마저 그 판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발견된 지식은 그 행수가 39행이고, 1행의 글자 수는 19자 내지 20자이다. 그러므로 총 글자수도 750여자 내지 800여자로 계산된다. 그 중에서 글자의 윤곽이 분명한 것이 총 100여자 정도이다. 확실히 판독할 수 있는 문장은 “在高麗太祖朝樹…” “私親求曰…” “曰蒙恩至大 更無深頓…” 등의 몇 구절이다.…이 소헌왕후의 지문과 발굴된 지식의 글을 비교하여 보면, 전혀 한 구절도 들어맞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소헌왕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렇다면 세종대왕의 것으로 밖에 추정할 도리가 없는 것 같다.<sup>62)</sup>

라고 하여 발굴지에서 발견된 지식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지 소헌왕후의 지식(세종실록에 전하고 있음.) 내용과 일치하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세종대왕의 천릉 전(前) 지식<sup>63)</sup>이라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춘관통고』의 희릉 관련 내용을 보면, ‘현재 전(傳)하는 것은 천릉 전(前) 지문으로 천릉지문은 전(傳)하고 있지 않다’<sup>64)</sup>고 한다. 구 희릉의 지문은 직제학 김안로가 찬(撰)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락은 장경왕후 윤씨의 세가계보(世家系譜)에 대해 기술하고 둘째 단락은 왕후로 책봉되는 과정과 책봉 후 행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는 왕후의 성품과 숭하한 것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 글자는 약 1,050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속칭 구 영릉’에서 발견된 지식의 내용 가운데 문자의 윤곽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문자와 ‘구 희릉’ 지문의 내용을 비교하면, 먼저 ‘在高麗太祖朝樹…’는 구 희릉의 지문 내용 가운데 첫째 단락인 왕후의 세가 계보를 기술하는 내용 가운데 시조 신달에 관한 내용으로 ‘시조 신달이 고려 태조조에 훈공을 세워 이름이…’에 해당된다. 다음 ‘私親求曰…’는 왕후의 책봉과정과 행적에 대해 기술한 둘째 단락 중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데 ‘첩은 사친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에 해당하는 ‘私親求恩…’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曰蒙恩至大 更無深頓…’ 또한 행적에 관련된

62) 김구진, 앞의 논문(1975), 62~64쪽.

63) 현재 세종대왕의 ‘誌文’은 『列聖誌狀通紀』3冊 卷之 5에 傳하고 있으며 이 誌文은 遷陵 誌文이다.

64) 『春官通考』11冊, 卷之18 「吉禮」, 陵寢 禧陵條.

단락에 속해 있으며 그 내용은 ‘대답하기를, 은혜를 입음이 지극히 크니 다시 말씀 드릴게 없습니다’에 해당하는 ‘曰蒙恩至大更無所煩…’의 오독(誤讀)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일부 글자 몇 자가 서로 상이한 점이 발견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1973년에 발견된 지석은 ‘구 희릉’의 지석이며 나아가서 해당 발굴지 즉 ‘속칭 구 영릉’은 ‘구 희릉’일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그림 3> 『열성지장통기』 6책, 「희릉지문」



#### IV. 결론 : 남겨진 과제

세종대왕의 초장지 즉, ‘구 영릉’의 위치를 문헌을 통해 상고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년간 수릉의 택지 과정에서 나타난 수릉의 위치가 현 인릉 부근이었을 것이라는 점, 둘째, 1973년 발견된 신도비의 위치가 인릉 부근이었으며 그 장소는 현종년간에 발견된 장소와 속종년간 발견된 구 영릉 신도비의

위치에 있어 큰 변동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릉 천릉 시 광을 조성하면서 발견된 병풍석 먼·우석과 천회의 규모를 통해 현 인릉을 ‘구 영릉’이라 확신할 수 있었다.

1973년 발굴 장소 즉, ‘속칭 구 영릉’의 진정성 제고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릉 도국 내에 설치되었던 능소(현릉과 회릉) 가운데 실록의 기사를 통해 현릉 보다는 회릉이 발굴지의 속성과 더욱 가까웠으며, 둘째 인릉의 천봉과정에서 구 영릉과 구 회릉에 묻혀 있던 많은 석의 종류가 노출되었고 그 석의들을 이용하여 인릉의 상설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73년 발굴지에서 발굴된 석의 물종(物種)과 인릉 상설에 사용된 ‘구 회릉’의 석의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 장소에 다시 매안한 물종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발굴지에 대한 ‘구 회릉’의 개연성은 더욱 커졌다. 마지막으로 발굴지에서 발굴된 지석의 내용과 구 회릉의 지문 중 일치하는 부분은 발굴지가 ‘구 회릉’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1973년 발굴지 즉, ‘속칭 구 영릉’은 ‘구 영릉’이 아닌 ‘구 회릉’이다.

모두(冒頭)에 밝힌 바와 같이 처음 ‘속칭 구 영릉’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된 이 논고는 전개 과정에서 ‘구 영릉’의 위치가 1973년 발굴 장소가 아닌 현 인릉이며 봉분을 조성하는 穴의 위치 또한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구 영릉’이라 알고 있었던 ‘속칭 구 영릉’은 세종대왕의 초장지인 ‘구 영릉’이 아니라 장경왕후 윤씨의 초장지인 ‘구 회릉’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속칭 구 영릉’의 진정성 및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구 영릉석물’ 12점<sup>65)</sup>에 대한 진정성도 동시에 재고해야 되는 문제로 남게 된다.

## 참고문헌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睿宗實錄』; 『中宗實錄』; 『英祖實錄』; 『憲宗實錄』; 한국역사오천년 CD롬, 서울시스템주식회사.

65)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42호 ‘구영릉석물’은 모두 13기가 지정되어 있다. 그 중 42-1인 세종대왕 신도비를 제외한 42-2호 문석인1, 42-3호 문석인2, 42-4호 무석인1, 42-5호 무석인2, 42-6호 양석1, 42-7호 양석2, 42-8호 마석1, 42-9호 마석2, 42-10호 장명등 체석, 42-11호 망주석 원수, 42-12호 혼유석, 42-13 고석을 말한다.

『國朝五禮儀(영인본)』, 民昌文化社, 1994.

『承政院日記』; 『春官通考』; 『各陵修改謄錄』; 『仁陵山陵都監儀軌』; 『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 『列聖誌狀通紀』, 서울대학교규장각소장(<http://e-kyujanggak.snu.ac.kr>).

『仁陵遷奉謄錄』, 장서각소장(<http://yoksa.aks.ac.kr>).

김구진, 「구영릉 신도비와 석물에 대하여」. 『역사교육』 18집, 1975, 33~85쪽.

김구진, 「조선초기 왕릉제도: 세종대왕 구영릉 유적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25호, 1979, 41~84쪽.

김상협, 「조선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7).

류재복, 「구영릉지의 위치와 풍수입지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안경호, 「朝鮮後期 殯殿建築에 대한 研究」.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장영훈,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서울: 대원사, 2000.

장영훈, 『서울풍수』. 서울, 도서출판 담디, 2004.

## 국 문 요 약

세종대왕의 초장지 즉, ‘구 영릉’의 위치에 대한 의문에서 처음 출발한 본 논고는 1973년 발굴을 개기로 세상에 알려진 ‘속칭 구 영릉’의 위치와 당시 발견된 각종 유구의 진정성을 확보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73년 발굴보고서를 근간으로 문헌을 통한 고증을 하였다. 논고의 전개 과정에서 ‘구 영릉’의 위치가 1973년 발굴 장소가 아닌 현 인릉이며 봉분을 조성하는 穴의 위치 또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구 영릉’이라 알고 있었던 ‘속칭 구 영릉’은 세종대왕의 초장지인 ‘구 영릉’이 아니라 중종계비 장경왕후 윤씨의 초장지인 ‘구 회릉’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속칭 구 영릉’의 진정성 및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구영릉석물’ 12점에 대한 진정성도 동시에 재고해야 되는 문제로 남게 된다.

● 투고일 : 2008. 4. 10.

● 심사완료일 : 2008. 5. 29.

● 주제어(keyword) : 세종(King Sejong), 왕릉(A royal tomb), 영릉(Yeongneung), 회릉(Huineung).